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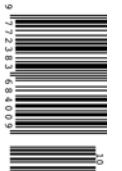
숲에서 누리는 기쁨

풍요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이 익어 가는 만큼
숲은 더욱 풍요로워지네요. 숲에서 결실을 갈무리하는 생명들이
와글와글 소란을 피우며 가을을 살찌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가을 숲에서는 기쁨이 두 배가 된답니다.
토실토실 살찌운 열매처럼, 가을 숲을 걸으며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www.forest.go.kr

MAGAZINE 14

Vol. 14 September + October 2016



Vol. 14
September
October
2016

축령산과
잣나무

MAGAZINE

숲

果松

발행일 2016년 10월 12일
발행 산림청
발행인 신원섭
기획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기획/편집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학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Vol. 14
September
October
2016



Contents

●
죽령산과
잣나무

4. 단상
가을 유품 나무
- 잣나무

6. 여행
깊고 그윽한 잣나무 숲에
나를 맡기다
- 죽령산 잣나무 숲

12. 역사
좋은 잣나무는 가을이 와도
쉽게 지지 않는다면
- 효성왕과 신종 그리고 잣나무



22. 가드닝
사무실, 오아시스가 되다
- 오피스 가드닝

26. 산 그리고 사람
인간 깊은 곳의 심연
그녀의 글이 닿는 곳
- 작가 정유정

30. 약초도감
산속의 신령스러운 버섯
- 영지버섯

32. 어떤 날 숲
아기야 숲으로 가자
- 대전 유림공원

36. 그린 테이블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달콤한 안식
- 잣, 대추

38. 숲에서 자라는 가치
하늘과 땅의 건강한 기운 담아낸
자연의 산물 찾아서
- 강릉 왕산약초마을

42. 캠핑
우리 가족의 캠핑 스타일 찾기
- 첫 번째 캠핑 컨설팅

46. 산촌일기
풍요가 넘나드는 계절
- 다섯 번째 이야기

50. 아트테라피
그저 마음 가는대로
색칠해 보세요
- 잣나무

52. 독자 메시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독자 응서

표지 일러스트
박지애



www.forest.go.kr

〈magazine 숲〉의 앱 매거진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forestkorea
 인스타그램 @forest_korea

잣나무

하늘을 향해 뾰족뾰족한 잎들이
뻗어 나깁니다.
기개는 강건하고 기품은 아름답네요.

그런 꼭대기에는

가을을 토실토실 살찌우는 잣 열매가
대롱대롱 매달려,
사람과 동물 모두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네요.

이번 호 매거진 숲은
사시사철 푸르고
가을에는 영양 만점 잣을 내어주는
잣나무를 찾아 떠납니다.

果松

단상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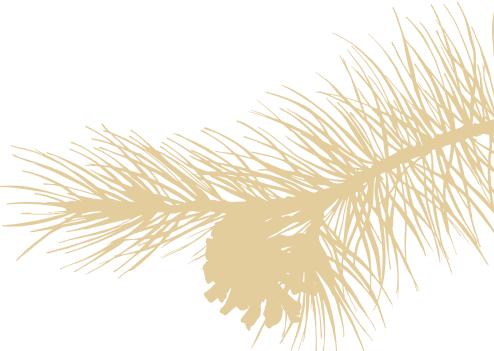
으뜸 나무

사시사철 짙푸름을 자랑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잣나무이죠. 잣나무는 소나무 종류와 형제 나무로, 그중에서도 가장 '큰형'격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40m까지 클 정도로 키도 무척 큽니다. 그런 잣나무가 숲을 이루고 서 있으면, 그 기상이 참으로 돋보입니다. 줄기는 허리를 굽히지 않은 채 곧게 뻗어 올라가고, 잎은 유난히 푸르고 무성하며, 유난히도 짙은 흑갈색 수피는 잣나무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잣나무는 열매, 잎, 목재까지 모두 유용한 나무입니다. '잣'은 가장 친숙하죠. 잣은 예부터 불로장생, 신선의 식품 중 하나일 만큼 그 진기가 오래전부터 알려진 식품입니다. 영양도 풍부하며 맛도 아주 일품이랍니다. 그래서 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지요. 옛 문헌에 따르면, 신라 시대 때 중국 사람들이 우리 잣나무를 무척 좋아했대요. 그래서 신라 사신들이 중국에 갈 때마다 잣을 가지고 가서 선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잣과 관계된 세시 풍속도 많습니다. 정월대보름 전날 밤, 잣 열두 개를 각각 실에 꿰어 둔 후 잣 하나하나에 달을 정해둡니다. 그런 후 잣에 붉을 밝힙니다. 잣이 밝게 빛나면 그달의 운수가 잘 풀릴 것이고, 밝지 않으면 그달의 운수가 좋지 못할 것이라고 풀이했대요. 정월 초하루에 잣나무 잎으로 만든 술을 마시면, 액운을 물리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전라도 일부 지방에서는 문간에 잣나무를 심어두면 질병이 없어진다는 믿음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잣나무의 진면목은 목재에 있습니다. 목재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해요. 틀어짐, 수축, 팽창이 적고 무척 가볍다고 해요. 또 무늬와 색까지 아름다워요. 그래서 건축, 가구, 선박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잣나무는 인체에 유익한 피톤치드도 많이 배출합니다. 잣나무 숲에서 삼림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심폐기능이 강화된다고 해요. 어느덧 무덥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잣나무 숲도 걸어보고, 잣으로 만든 영양가 넘치는 요리도 먹어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



Special

果松

여행

깊고 그윽한 잣나무 숲에

나를 맡기다

죽령산 잣나무 숲

봄은 꽃구경 가야 해서, 여름은 더워서, 겨울은 추워서,

갖은 핑계로 트레킹을 피해왔다면, 가을만큼은 어떤 핑계도 용납지 못한다.

가을만큼 트레킹 하기 좋은 계절이 있을까?

온 천지에 코스모스 만발하고, 가을 하늘 높고 청명하며, 바람마저 산들산들 불어오는데,

죽령산을 걸었다. 편편하고 보드라운 숲길이 온 마음 다해 손길을 내어 주었다.



1.
빽빽하게 들어선 잣나무가 몸과 마음을 싱그럽게 만들어준다.

2.
백련사는 축령산, 운악산, 명지산 그리고 서리산이 어워싸고 있다. 그래서인지 무척이나 이득하고 포근하다.

가을을 따라 걷는 길

그림 같은 풍경이 모처럼 눈에 들어왔다. 뭉실뭉실 포개어진 구름, 바람에 살랑살랑 나부끼는 나뭇잎들, 고개마다 다른 색을 지닌 이름 모를 산들, 유유히 흐르는 강물까지. 모처럼 눈과 마음이 다 즐겁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적정한 온도, 계다가 조금이라도 땀이 날라치면 불어오는 바람이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준다. 깊고 고요한 숨을 내쉬며, 축령산을 찬찬히 걸었다. 계절의 축복이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여유롭게 걸어본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실로 근육통을 느껴보며 걸어본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처럼 제대로 된 '여유'를 장착한 뒤 축령산 산행 길에 올랐다.

백련사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샘골길 159-50
문의 : 031-585-3855

잣향기푸른숲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146
문의 : 031-8008-6969

온 마음 다해 숲에 나를 내던지다

축령산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과 가평군 상면 경계에 있는 산이다. 축령산은 온 산이 잣나무라 할 만큼, 잣나무가 무척 많은 산이다. 80여 년 전 심은 잣나무가 온 산을 뒤덮고 있다. 잣나무림으로는 아마도 축령산을 따라올 곳이 없을 것이다.

축령산의 잣나무 숲길 코스는 여러 개가 있다. '잣향기푸른숲'에서 시작하는 코스, 가평 '백련사'의 등산로를 따라 오르는 코스, '아침고요수목원'을 따라 오르는 코스 등이다. 어디에서 시작하건,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어 자란 잣나무를 만날 수 있다. 그중 잣나무 숲에 접근하기 가장 쉽다는 백련사를 택했다. 고즈넉한 백련사는 축령산은 물론 좌측으로 운악산, 우측으로 명지산 그리고 뒤로 서리산이 감싼 곳에 자리한다. 그 모습이 마치 '연꽃' 속에 싸여있는 모습이라 해, 절 이름도 '백련사'라 붙었다. 백련사는 창건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절이라 보물과 문화재는 없었다. 하지만 고요하면서도 나름의 멋과 정취를 풍기는 곳이었다. 절에 왔으니 경건한 마음으로 경내를 걸었다. 묵직한 나무 기둥에서 기품 있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잣나무 숲길을 오르기 위해서는 대웅전을 거쳐, 오른쪽으로 난 등산로를 이용하면 된다. 약 20여 분 정도 오르막이다. 등산로 초입부터 잣나무가 수두룩하다. '잣'을 먹어본 경험은 있지만, 잣나무를 본 기억은 없는 것 같다. 아니면 잣나무를 보고도 소나무라 착각했을 수도. 그만큼 잣나무와 소나무는 무척이나 비슷하게 생겼다. 이 둘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잎의 개수'라 한다. 그리하여 떨어진 잎을 하나 주어 새어보니 '다섯 개'다. 떨어진 잣 열매도 곳곳에 즐비하다. 잣 열매 하나를 주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속이 꽉 차 있다. 아직 먹이가 되지 못했는가 보다. 잣 열매에 가득히 묻은 송진 향도 참으로 상쾌하다. 끈적끈적 손에 묻은 송진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잣나무 숲에 당도하기까지는 꽤나 고요하면서도 심심한 풍경을 즐겨야 한다. 그렇기에 떨어진 잣 열매도 구경하고 송진 향도 맡아 보고 헤집어진 밤송이도 밟으며, 오롯이 숲길에 나를 맡겨야 한다. 그래도 폭신풍신한 흙길이 오르막길을 편안하게 안내해준다. 가을바람도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떨어지는 땀방울을 식혀준다. 흙길이 끝나자, 임도 길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축령산 잣나무 숲길이 시작됨을 알리는 길이다. 임도 좌우로 늘어선 나무가 모두 잣나무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하게 자리한 잣나무가 무척이나 진귀하면서도 멋지다. 잣나무를 기둥 삼아 대룡대룡 매달린 등나무도, 새파랗게 낀 이끼도, 모두 멋진 풍경을 더하는 요소들.





3.

이제 제법 평坦한 길이다. 사방에서는 잣나무의 송진 냄새가 풍겨왔다. 숲이 내뿜는 청량하고 맑은 기운에 마음껏 삼림욕을 즐겼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평, 도심의 휘황찬란한 불빛과 요란스러운 소란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 무척 기뻤다. 도심에서 지친 마음을 왜, 숲으로 데려가라 하는지 이해가 되는 풍경들이었다. 아름드리 빼곡하게 자리한 잣나무의 초록 정경이 산뜻하다. 꽉 막혀 있던 가슴마저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다.

그렇게 4km를 걸었을까. 이내 ‘잣향기푸른숲’에 도착했다. 잣향기푸른숲은 울울창창한 잣나무뿐만 아니라, 화전민 마을, 목공체험관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 지친 마음을 달래려는 시민들에게 쉼과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수목원

잣나무 숲에서 마음껏 힐링하고, 아침고요수목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잣향기푸른숲에서 바로 아침고요수목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만약, 잣나무 숲을 걷고도 체력이 충분하다면 말이다.

아침고요수목원은 대학 원예학과 교수가 조성한 곳으로,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를 계절별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사실 이곳은 원래는 염소를 키우던 ‘돌밭’이었던단다. 설립자인 한상경(당시 삼육대 원예학과 교수) 대표가 1993년부터 3년여의 세월을 걸쳐, 굴착기로 길을 내고 맨손으로 땅을 개간해 수목원으로 변신시켰다.

아침고요수목원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행현리 산255)
문의 : 1544-6703



10

수목원의 시작인 ‘고향집정원’부터 수목원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하경전망대’가 있는 ‘하경정원’까지 총 20여 가지의 테마로 정원이 꾸며져 있다. 때문에 식물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의 정원들로보며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다. 에덴정원, 하늘정원, 달빛정원 등 특색에 맞게 이름 지은 정원을 걷다 보면, 저절로 식물의 매력에 흠뻑 젖게 된다.

수목원의 싱그러운 초록빛 전경이 온 시야에 펼쳐졌다. 온갖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수목원은 정갈하면서도 예쁘다. 이국적인 풍경도 자아내,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착각도 불러일으킨다. 아름다운 식물 덕택일 터이다.

다양하게 조성된 정원을 걸으며, 계절마다 색다른 미를 내뿜는 나무를 마주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갖 가지 빛깔의 나무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 내는 광경은, 여느 수목원에서는 마주할 수 없는 특별함이다.

숲의 의미는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걸어야 보이고 걸어야 찾을 수 있으며 걸어야 느낄 수 있다. 걷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운명의 짹이 ‘번쩍’ 나타나듯, 숲에서 활활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걷다 보면 궁금해할 것이다. 숲을 차지하는 꽃과 나무의 이름은 무엇이고, 저들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솟아나는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축령산은 걷는 의미뿐만 아니라, 생명의 의미까지 깨닫게 한 여행이었다. 때로는 휴식이 필요하다.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순간,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잠시 도심의 번잡함, 도심의 휘황찬란함을 피해 숲을 걸어보자. 그곳에는 나를 기다리는 나무가 있다. 축령산에는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하는 잣나무가 나를 기다린다. 이토록 짙고, 푸른 열정을 내어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을까. ●



5.

6.



4.

3. 아침고요수목원은 총 20여 가지의 테마 정원을 갖춘 곳이다.

4. 빽빽하게 들어찬 식물들이 싱그러움을 선사한다.

5. 하얀 건물이 포인트인 ‘달빛정원’. 이곳에는 특히 ‘흰색’ 식물들이 많다.

6. 예쁜 아생화도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었다.



11

果 松

역사

좋은 잣나무는 가을이 와도

쉽게 지지 않는다네

효성왕과 신충 그리고 잣나무

잣나무 아래에서 효성왕과 신충은 장기를 두며 약속 하나를 한다.

효성왕이 왕위에 오르면, 신충을 등용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나 효성왕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잣나무는 노랗게 물들어가며, 말라 죽었다.

글. 강판권(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일러스트. 정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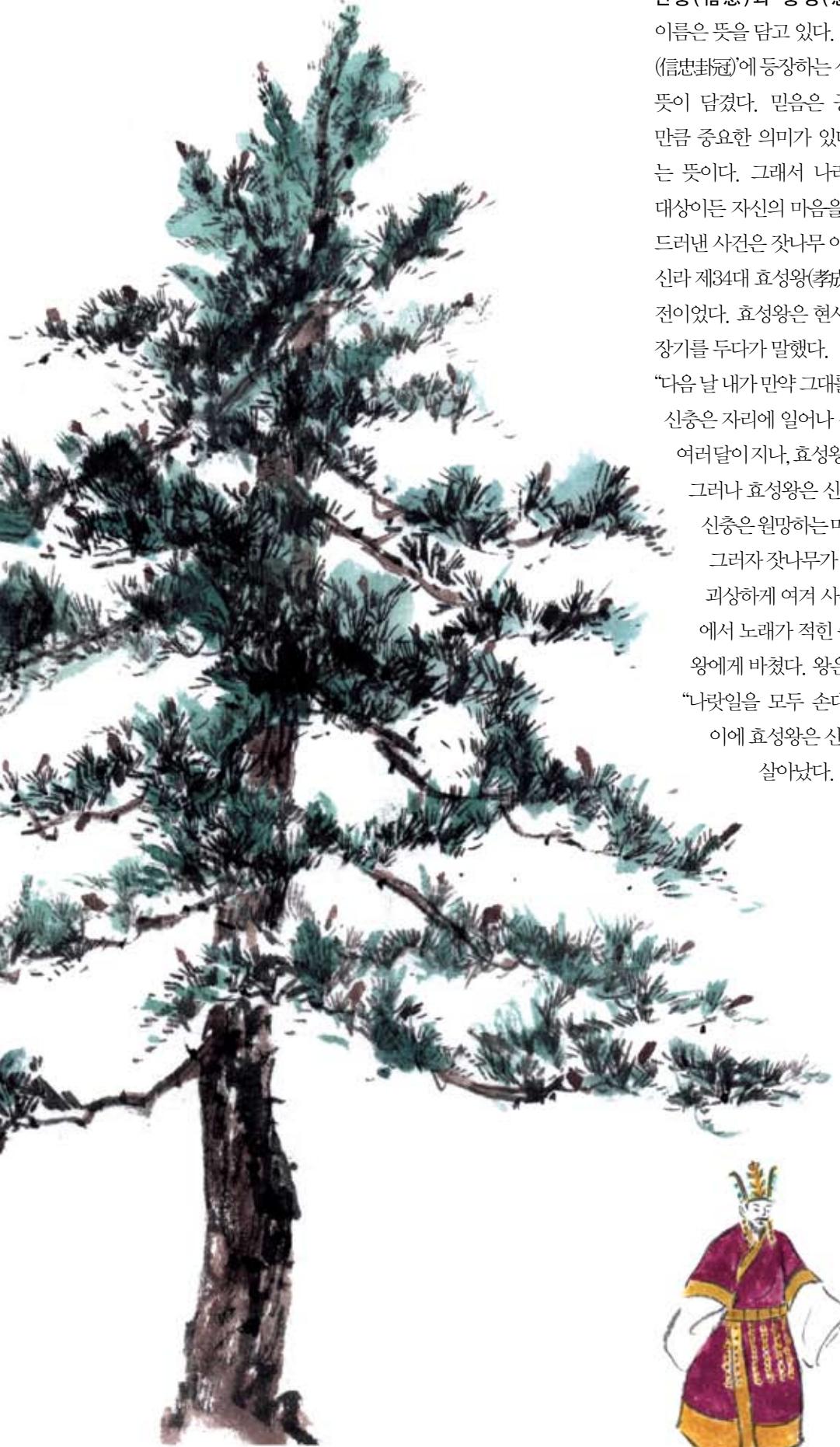
서럽다, 잣나무여!

소나뭇과의 잣나무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다. 잣나무의 학명(*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중 속명 '코라이엔시스(*koraiensis*)'에서 볼 수 있듯, 잣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인 나무다. 하지만 자신만의 한자 이름은 갖지 못했다.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까지, 중국의 한자로 우리의 나무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잣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무척 서럽다. 잣나무를 의미하는 한자는 '백(柏:柏)'이다. 그러나 '백'은 중국에서 측백나뭇과의 측백나무를 의미하는 한자다. 이처럼 같은 한자를 중국에서는 측백나무로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로 이해하고 있으니,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잣나무라는 이름은 열매 '잣' 때문에 생겨났다. 잣나무의 다른 이름 중 하나는 '오엽송(五葉松)'이다. 오엽송은 한 묶음의 잎이 다섯 개라서 붙인 이름이다. 잣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홍송(紅松)'이다. 홍송은 나무의 속이 조금 붉어서 붙인 이름이다. 껌질이 붉은 소나무도 적송(赤松)이라 부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적송을 홍송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잣나무를 홍송이라 부른다.

잣나무가 우리나라의 특산인 만큼,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잣나무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잣나무를 '해송자(海松子)'라 불렀다. 중국에서는 본국 밖의 나무를 이해할 때 '해' 자를 붙였다. 해송자는 소나뭇과의 해송(海松), 즉 곰솔과 착각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충(信忠)과 충성(忠誠)

이름은 뜻을 담고 있다. 『삼국유사』 권5, 「파은(遐隱)」 8편 '신충과관(信忠卦冠)'에 등장하는 신충(?~?)의 이름에는 '믿음'과 '충성'이라는 뜻이 담겼다. 믿음은 공자가 군사(兵)와 양식(食)보다 중시했을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충은 '자신의 마음을 다한다(盡己之心)'는 뜻이다.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만이 충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든 자신의 마음을 다하면 그것이 곧 충이다. 신충이 충성을 드러낸 사건은 잣나무 아래서 일어났다.

신라 제34대 효성왕(孝成王, 재위 737~742)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이었다. 효성왕은 현사(賢士) 신충과 궁궐 뜰의 잣나무 아래에서 장기를 두다가 말했다.

“다음 날 내가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이 잣나무가 증언을 할 것이요.”

신충은 자리에 일어나 절을 올렸다.

여러달이 지나, 효성왕은 즉위하여 공신(功臣)들에게 상을 내렸다. 그러나 효성왕은 신충을 잊고 그를 등용하지 않았다.

신충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걸었다. 그러자 잣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말라버렸다. 왕은 이 사실을 괴상하게 여겨 사신을 보내 잣나무를 살펴보게 했다. 잣나무에서 노래가 적힌 종이가 하나 발견됐다. 사신은 이를 가져가 왕에게 바쳤다. 왕은 매우 놀라며 말했다.

“나랏일을 모두 손대다 보니 바빠서 옛일을 잊을 뻔했구나.”

이에 효성왕은 신충에 벼슬을 내렸다. 그러자 잣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신충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좋은 잣은
가을이 와도 쉬 지지 않는다네
너 어찌 잊겠느냐
우러르던 낯이 계셨는데
달그림자는 옛 뜻에
흐르는 물결을 애처로워 하는구나
모습은 바라보지만
세상 모두 아쉽기만 할 뿐
(후구는 잃어버림)

신충이 효성왕을 원망하면서 지은 노래는 왕을 향한 충성심을 담고 있다. 그러나 효성왕이 즉위 후에 신충을 잊은 것은 나랏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어서다. 하지만 아무리 나랏일이 많았더라도 신충을 잊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효성왕이 신충을 등용하지 않았던 것은 신충이 제33대 성덕왕(聖德王, 재위 702~737)의 신하였기 때문이다. 신충은 효성왕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효성왕은 신충의 충성을 의심했다. 즉, 신충이 효성왕의 신임을 얻지 못한 것은 당시의 권력 관계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효성왕이 신충을 등용한 것은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아 선택한 결단이었다. 재위 기간에서 알 수 있듯, 효성왕은 겨우 5년간 왕위에 있었다. 왕권이 허약했음을 뜻한다. 재임 기간 동안 정국도 불안했다.

신충과 단속사

신충은 제35대 경덕왕(景德王, 재위 742~765)과 제36대 혜공왕(惠恭王, 재위 765~780)의 총애를 받았지만, 벼슬자리에는 오래 있지 않았다. 신충은 경덕왕 22년(763)에 벼슬을 그만두고 남악(南岳 :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후에도 왕이 그를 두 번이나 불렀으나 되돌아 가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그가 경덕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잣나무에 깃든 이야기를 해석하면, 어쩌면 효성왕에 대한 충성일지도 모른다. 신충은 왕을 위해 '단속사(斷俗寺)'를 창건하고, 죽는 날까지 산 속에 묻혀 살며, 왕의 복을 빌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단속사의 창건설에는 두 가지가 전해진다. 하나는 『삼국사기』 권9 '경덕왕' 조에 나오는 '신충 창건설'이다. 위 내용이다. 또 하나는 경덕왕 7년(748) 이준(李俊: 李純)이 조연소사(槽淵小寺)를 개창(改創)하고, 단속사라 불렀다는 이야기다.

단속사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다. 단속사라는 이름은 '속세와 단절한다'는 뜻이 담겼는데, 이는 창건자의 강력한 의지를 품고 있다.

누가 단속사를 창건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는 절의 이름으로 보아 신충의 설을 믿고 싶다.



청태산과 남이섬의 잣나무 숲

잣나무는 우리나라의 특산이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한 그루도 없다. 그러나 전국에 잣나무 숲을 조성한 휴양림이 적지 않다. 잣나무에 관심이 높다는 뜻이다.

내가 만났던 잣나무 숲 중 잊을 수 없는 곳이 있다. 강원도 횡성의 청태산자연휴양림과 경기도 가평의 남이섬이다. 청태산의 잣나무 숲은 다무 데크로 걸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다. 휴양림 입구부터 만날 수 있는 잣나무 숲은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울창하다.

남이섬의 눈 내린 잣나무 숲은 지금도 감동이 남아 있을 만큼 명품이다. 잣나무 숲은 배를 타고 남이섬에 내려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날 수 있다. 평지에 있는 남이섬 잣나무 숲은 청태산의 잣나무 숲과 느낌이 사뭇 다르다. 남이섬의 잣나무 숲은 남이장군의 기상과 아주 잘 어울릴 뿐 아니라, 눈 속에서는 더욱 빛난다.

잣나무는 소나무처럼 추운 곳에서 자신을 단련한다. 그래서 나처럼 남쪽에 사는 곳에서는 잣나무를 거의 만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처럼 잣나무를 마주할 때는 늘, 잣나무의 기상과 기개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멈출 수가 없다.

잣나무의 가지는 충충나무처럼 서로 마주난다. 그래서 잣나무의 기상을 보려면 잣나무 아래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물론, 잣나무의 잎도 소나무의 잎 그 이상으로 푸르지만, 잣나무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마주하면 그 모습이 무척 장관이다. 만약 가지를 잡고 한 칸 한 칸 올라간다면, 잣나무의 깊은 속마음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젊은 잣나무는 소나무와 달리 줄기와 가지가 매끈하다. 그래서 잣나무는 소나무와 다른 매력이 있다. 잣나무의 매력은 성장할수록 더욱 깊어진다. ☺



果 松

과학

잣나무 한 그루에 담긴

삶과 역사

잣나무 생태

잣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우리 정서를 대변하는 나무다. 예부터 잣나무의 곧추 뻗은 줄기와 사시사철 푸른 잎이 한결같다 하여, 우리 민족은 '송백(松柏)의 절개'를 최고의 덕목이라 여겼다.

잣이 성숙한 가을철, 잣나무 숲은 사람과 청설모의 활동 영역이 된다.
잣이란 먹이를 먼저 차지하려고 생존을 위한 먹이 다툼을 한다.

글. 오찬진(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목재가공연구팀장)

인간과 청설모 그리고 잣나무

가을이면 사람과 청설모가 잣나무 숲으로 몰려든다. 그리고는 잣을 차지하려는 먹이 다툼을 벌인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청설모는 잣나무에 이로운 동물인가? 해로운 동물인가? 그렇다면 사람은 잣나무에 이로운 동물인가? 해로운 동물인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청설모는 해로운 동물이다. 청설모는 잣송이를 따기 위해 잣나무를 이리저리 넘나든다. 때문에 잣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잣나무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청설모보다 더 해로운 존재다. 사람은 잣송이를 따기 위해 나무 위에 직접 올라간다.

때문에 가지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나무 기둥에 상처를 내기도 한다. 반면 나무타기의 명수 청설모는 잣나무를 자유자재로 오르내리지만, 잣나무에 상처를 내지는 않는다. 순식간에 잣을 땀다.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니, 잣나무는 사람보다 청설모가 더 좋지 않을까. 사람은 잣나무에서 획득한 잣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가지고 떠난다. 하지만 청설모는 겨울철 먹을 것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잣 열매를 땅 속에 숨겨둔다. 그런데 가끔 청설모는 숨겨둔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잣 열매는 이듬해 봄에 발아해, 잣나무로서의 일생을 살게 된다. 청설모는 영양이 많은 잣을 먹어 좋고, 잣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이곳저곳에 퍼뜨려 자라게 해주니 좋다. 그러하니 청설모와 잣나무는 서로 공생하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민족과 함께한 잣나무

오래전부터 잣나무는 우리 조상과 함께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잣나무는 아직 없다. 노거수 몇 그루만이 설화와 함께 남아있을 뿐이다. 안동에는 '후조당(後凋堂)'이라 이름 지은 300년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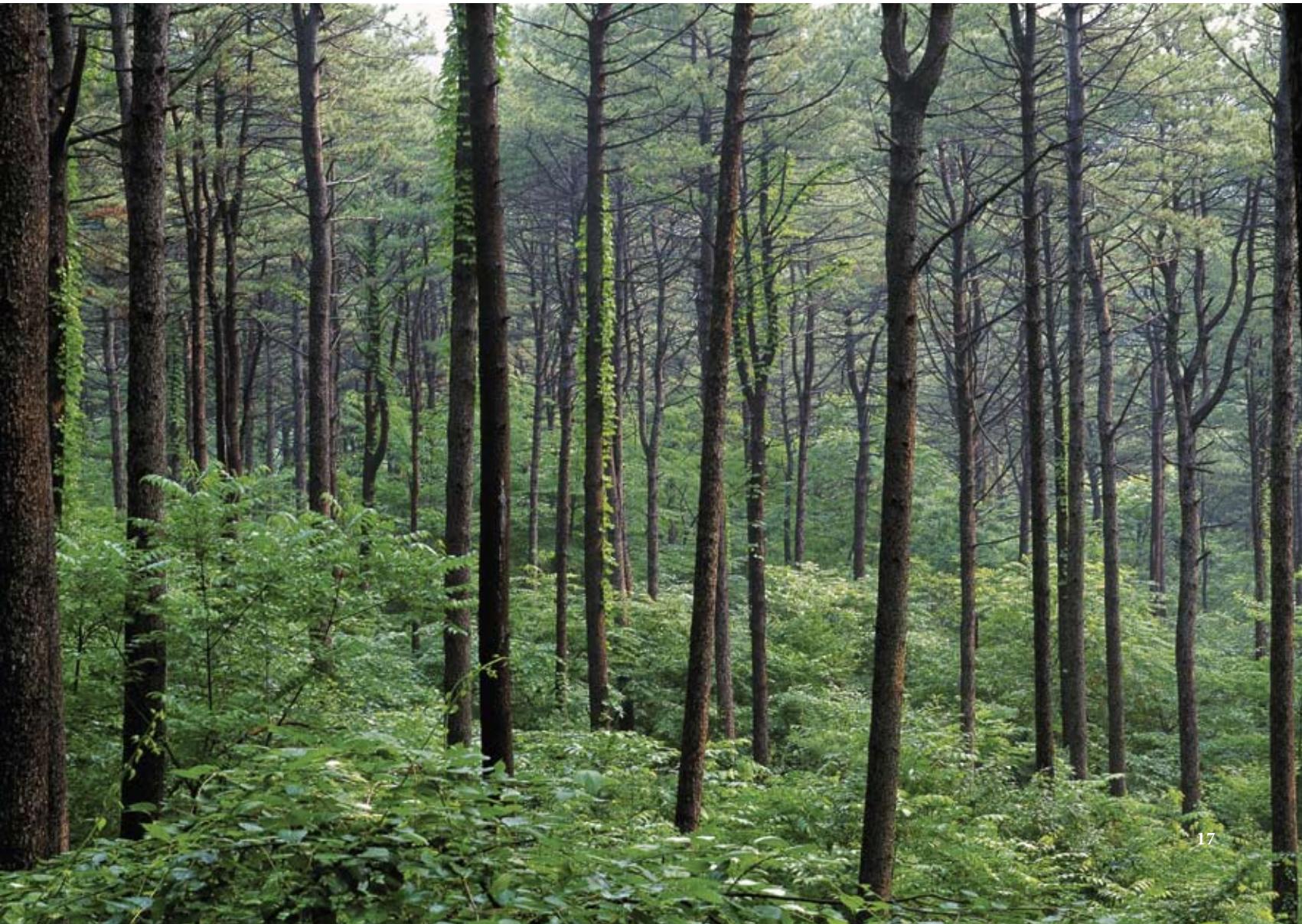


된 잣나무가 있다. 퇴계 이황을 잣나무로 상징하는 나무다. 평소 퇴계 이황은 고이한 취미가 있어, 소나무와 잣나무를 매우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정선에는 호랑이가 마을의 개를 물어 가는 것을 막아준 잣나무가 있다. 평창에는 잣에 벌레가 끼면 마을의 청년이 다친다하여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받는 나무가 있다.

설화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난 풍속도 많다. 우리 민족과 잣나무가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해 왔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들이다. 임신했을 때 숲을 거닐다 잣나무를 마주하게 되면 도량이 넓고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한다. 잣 숲을 담가 두었다가 정월 초하루에 마시면 액운을 물릴 칠 수 있다고 한다. 전라도 일부 지방에서는 잣나무를 문간에 심어 놓으면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는다.

오랜 전통으로 이어오는 만큼, 잣나무는 무척 유용한 나무다. 쓰임새가

이주 많다. 잣 열매는 아주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사용해 왔다. 전통음료인 수정과, 식혜에 잣을 동동 띠어 먹을 수 있다. 각종 요리에 고명으로도 쓰인다. 흥년에는 허기를 면하게 해준 고마운 구황식품이었다. 잣죽은 잣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요리다. 또한, 익지 않은 솔방울을 이용해 술도 담글 수 있다. 그 향기가 일품이다. 고려 명종 때에는 왕의 허약한 체질을 고치는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잣 숲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과실주이자, 약이 되는 술이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잣을 장복(長服)하면 몸이 산뜻해지고, 장수불노한다고 적혀 있다. 민간요법에서는 열매는 충치·코피·기침에, 열매의 속껍질은 화상에, 송진은 상처에, 잎은 원기촉진에 좋다고 전해진다. 잣나무 한 그루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쓸모가 다 담겼다. ☽



果松

인포그래픽

하늘 향해 쭉쭉 뻗어가는

늘 창창한 나무

잣나무 정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는 '소나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나무는 '잣나무'란다.

잣나무의 학명은 '파인너스 코라이엔시스(Pinus Koraiensis)'. 한국이 원산인 식물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도 잣나무를 '신라송'이라고 불렀다고 하니, 잣나무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나무임이 분명하다.

생육 특징



1,000m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고산지대



-50°C

추위에 강해 영하 50°C에도 견딜 수 있다

잣 방울 한 개



100~120여 개

잣송이 하나에 잣 100~120여 개가 들어 있다



20년

이런 방울이 달리기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

생김과 쓰임에 따라 붙여진 이름



바늘 같은 잎이 5개가 달린다고 하여
오엽송(五葉松)



나무의 목재가
붉은색을 띤다고 하여
홍송(紅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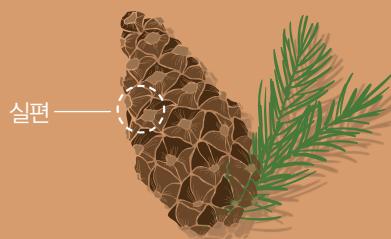


열매가 크고 영양분이 많아
신라시대부터 과실수로 심었다고 하여
과송(果松)



나무에 송진과 같은
기름이 많은 나무라고 하여
유송(油松)

잣나무



- 솔방울보다 길쭉한 편,
- 실편이 뒤로 젖혀져 있는 게 특징



- 잎의 개수 : 5개
- 잎의 길이 : 7~12cm



- 나무껍질 : 검은빛을 띠는 갈색, 바늘모양

소나무



- 계란형, 수분이 많을 때는 닫혀 있고
- 건조할 때는 활짝 열린다.



- 잎의 개수 : 2개
- 잎의 길이 : 8~9cm



- 나무껍질 : 가복등 껍질처럼 두껍고 깊게 갈라지며
위로 갈수록 붉은색을 띈다.

질병에 강한 나무



외국 잣나무는 **22~86%**가 질병에 걸리는 반면
토종 잣나무가 질병에 걸리는 확률은 **1%** 미만

국립산림과학원 우관수 박사팀이 전 세계 20종의 잣나무에
잣나무털녹병의 병원균을 넣어 본 결과, 토종 잣나무가 병에
가장 걸리지 않았다.

잣 수확은 오로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잣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높은 가지 끝에 달린다.

잣나무 높이는 **20~30m**



원숭이
송진 때문에
한 번 올라가면 다시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



소방용 대형 헬기
채산성에 비해 비용이
무척 많이 듈다.



월드 트래블

가을에 찾아오는 보랏빛 벚꽃 향연

남아공 프레토리아

남아공에는 '자카란다 (Jacaranda)'라 부르는 보라색 벚꽃이 있다. 우리의 봄을 황홀하게 빛내는 벚꽃과 달리, 보라색 벚꽃 자카란다는 9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10월 말까지 절정을 달한다. 특히 남아공의 프레토리아에는 약 8만여 그루의 자카란다가 가로수로 심겨 있다. 가을이면 보라색 벚꽃이 향연을 이룬다. 프레토리아 인근의 대학생들은 자카란다 꽃이 정수리에 떨어지면 행운이 온다고 믿는다고 한다. 자카란다의 꽃말은 '화사한 행복'. 꽃이 지닌 색만큼, 출거운 행복을 전해주는 것 같다. ☞

사무실, 오아시스가 되다

오피스 가드닝

사무실?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는 곳, 어떻게 보면 집보다 가깝고, 방보다 친근한 공간, 아닐까?

하지만 이곳에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건조함'과 '전자파'다.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손님들, 어떻게 할까?

이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스타일링. 라비앙플레이



Office Gardening



오피스 가드닝?

직장인이라면, 집보다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때문에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은 직장인에게 필수 요소. 오피스 가드닝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무실에서 자신의 환분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해소되고, 공기는 정화되며, 전자파까지 차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무실에 조금만 앉아 있어도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오고, 숨은 턱터 막혀오는 직장인라면. 지금 한 번 오피스 가드닝을 실천해 보자. 당신의 책상 위에도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어떻게 할까?

- 내 자리를 스캔하라** 제일 먼저 내 자리를 탐색해 보자. 내 자리가 창가 쪽인지, 해가 들지 않는 그늘인지. 그 후에 식물을 선택한다. 해가 잘 들지 않는다면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좋다. 고사리, 인시그니스, 크루시아 같은 식물이 좋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쪽에서는 하루 중 최소 6시간 이상 빛을 쬐어야 하는 허브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 흙은 썩지 않아야 한다** 오피스 가드닝에서 가장 난관은, 바로 '배수다'. 하지만 썩지 않는 기능성 토양을 사용하면, 이러한 걱정은



싹 사라진다. 보통의 흙과 달리 배수가 되지 않아도 식물의 뿌리가 썩지 않으며 심지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혹은 원예 전문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③ 벽은 최적의 장소다 수많은 사무기기, 문서들로 도저히 식물을 배치할 곳이 없다면 벽면을 활용하자. 벽에 철망을 설치한 후, 화분을 걸어 두는 것도 좋다. 벽 한 쪽에 선반을 달아 식물을 배치해도 좋다. 큰 공간이 없어도 여러 화분을 배치할 수 있다. 선반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분은 가벼운 소재의 철제, 플라스틱이 좋다.

④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라 의외로 사무실에는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 공간이 많다. 복도, 회의실 한구석이 바로 그런 곳 중 하나. 이런 곳을 활용해 미니 화단을 만들면 회사가 한층 밝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 때문에 식물을 키우기 무척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공간에는 관엽식물이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해피트리, 폴리셔서, 아테누아타, 떡갈고무나무 같은 것들이다. 관엽식물은 그 특성상 잎이 크고 튼튼해 해가 들지 않는 곳에서도 잘 자란다. 또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니 관리가 수월하다. 하지만 높이가 꽤 있으니,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놓을 것.

⑤ 일정한 스케줄을 정하라 가드닝 스케줄 표를 제작하면 효율적으로 식물을 관리할 수 있다. 사무실 내는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다. 즉, 여러 사람의 손을 타기 쉬운 공간이라 것. 때문에 식물에 언제 물을 줬는지 기록하는 것이 좋다. ●

Tip. 아주 간단한 다섯 가지 규칙

- ① 난방 시에는 물을 더 자주 준다.
- ② 실내에서는 분무기로 잎에 물을 뿌린다.
- ③ 금요일, 퇴근하기 전에는 화분을 창가로 옮겨놓는다.
- ④ 물은 야외 식물의 70%만 준다.
- ⑤ 별례가 걱정된다면, 전자레인지에 흙을 넣고 3~4분간 돌려준다. 살균을 손쉽게 할 수 있다.



Good Choice

어떤 식물이 좋을까?

스투키 스투키는 NASA에서도 인정한 공기정화 1등 식물이다. 기르기도 무척 쉽다. 스투키는 선인장과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지만 않으면 된다. 대신 표면이 쪼글쪼글해지면 물과 환기가 필요하다는 신호,

울마 울마는 피톤치드를 실내에서도 마실 수 있도록 돋는다. 울마 잎을 쓰다듬으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피톤치드가 발생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들게 돋는다.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고, 걸들이 밀았을 쯤 물을 듬뿍 주면 된다.

산세베리아 공기정화식물로 인기가 많다. 잎에서 음이온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제거에 좋다. 산세베리아는 강한 빛을 싫어한다. 통풍이 잘되고 반 그늘진 곳에 두고 키우면 좋다.

뱅갈고무나무 적당히 햇빛이 드는 실내에서 키우며, 속흙이 마르면 물을 준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잎 닦기'다. 뱅갈고무나무는 잎의 기공을 통해 실내 오염 물질을 정화한다. 이런 잎에 먼지가 쌓이면 기공이 막히고, 공기정화 효과는 준다. 잎에 묻은 먼지를 종종 닦아주도록 한다.

파키라 일본의 한 식물 연구 기관에서 '마음이 안정되는' 식물 1위를 차지한 나무다. 때문에 업무를 보거나, 책을 읽는 장소에 두면 좋은 식물. 특히 '알파파'를 상승시켜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하고, 10일에 한 번 물을 듬뿍 준다.

테이블 야자 누구나 키우기 쉬운 식물이다. 특히 '전자파' 차단에 좋다. 또한,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 생명력이 강하지만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둔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물을 준다.



파비안 파비안 역시 공기정화하는 데 최고다. 세로로 길게 자라는 식물이기에 공간을 많이 차지 않아 실내에서 키우기도 좋다. 반양지의 따뜻한 곳에 두고, 여름에는 2주에 한 번, 겨울에는 20일에 한 번 준다.

행복나무 행운을 가져다준다 하여 이름도 행복나무다. 전자파 차단에 효과 만점이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직사광선은 잎을 태게 할 수 있으니, 밝은 곳에 두되 직사광선은 피한다. 직사광선보다 간접광이 행복나무에 더 좋다.

도시숲을 배달해 드립니다!



일상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공부에 지친 여러분을 위해 도시숲(화분)을 배달해 드립니다. 언제 숲을 만나고 싶은가요? 언제 숲을 느끼고 싶은가요? 그 사연을 보내주세요.

- 기간 : 손안의 도시숲 화분 4,000개 소진 시까지
- 대상 : 도시숲을 원하는 누구나
- 참여 방법 : Delivery 도시숲 홈페이지(urbanforestkorea.com) 개인 SNS 및 블로그에 이벤트 이미지를 공유하면 당첨 확률은 UP!
- 발표 : 주 1회, 다섯 분을 선정하여 서프라이즈로 찾아갑니다.
(당첨 확인은 차주차 수요일 On 도시숲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 깊은 곳의 심연

그녀의 글이 닿는 곳

작가 정유정

사람의 마음이 궁금했다. 그중에서도 '악'이 탄생하는 계기를 알고 싶었다고 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도대체 왜 다른 이의 목숨을 앗아가고, 처단하고,
잔인하게 파괴하는 것일까. 그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정유정 작가가 <종의 기원>으로 3년 만에 독자들을 찾았다.
사이코패스의 이야기, 라는 책 소개에 독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정유정과 사이코패스? 하고 호감의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이미 많이 사용된 소재, 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난 대부분의 독자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독자 스스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건 분명 전에 없던 것이었다.





profile

정유정 작가

2007년,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제1회 세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2011년 발표한 장편소설 <7년의 밤>이 언론과 서점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고,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출간작으로 <열한 살 정은이>, <미법의 시간>, <28>, <7년의 밤> 등이 있다.

1.

인간의 악(惡), 그녀가 천착하는 소재

기보다 큰 옥수수가 길게 늘어선 밭길, 철로가 길게 놓여 있고 마을마다 자리 잡은 우물이 정겨운 고향. 전라남도 함평에서 자란 정유정 작가는 자연을 벗 삼아 놀고 숨 쉬며 자리왔다. 산은 높고 물은 맑은,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포근한 자연에서 지냈기 때문일까. 어릴 적 그녀는 하루가 멀다하고 온 동네를 달음질하는 소녀였다.

“그야말로 앞뒤 없는 전차였죠. 마음에 안 들면 여기저기 가서 그냥 들이받는. 억센 시골 여자애. 딱 그 모습이었어요. 커서 어디 변하나요. 간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거기서도 제 태도가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입사하고 얼마 안 돼 중환자실로 배치됐는데, 이유는 계속 펌플레이너들이 들어와서예요. ‘왜 저 간호사는 친절하지 않느냐’ ‘너무 무뚝뚝하다는 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이에 중환자실로 가게 됐어요.’ 병원 쪽에서 저를 배려해준 거죠. 다들 중환자실을 힘들어하지만 저는 편했어요. 작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환자만 잘 간호하면 되니까.”

하고 나왔다는 그녀.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수술 장면을 보고 밖으로 나와 구토를 하고 엉엉 울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 못해 그날 점심에 나온 돼지고기 반찬을 깨끗하게 비워냈다. 그건 분명 그녀의 성격이었다.

“작가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작품 속 인물이 갖는 성격의 아주 작은 지점이라도 작가와 닮아있죠. <종의 기원> 유진의 성격에도 분명 제가 들어가 있어요. 무신경하고, 약간 깐죽거리기도 하고. 그게 다 저예요. 한 독자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작가는 소설과 실제가 정말 똑같구나’ 하는.”

작품 끝낸 후 비우는 과정 중요

정유정 작가는 작품 한 편을 집필할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낸다. 구상 기간, 자료 조사 기간, 본격적으로 작품을 쓰는 시간이 다른 소설 가보다 유독 긴 편이다.

“자료 조사하는데 반년 정도, 쓰는데만 2년 정도 걸려요. 일정하게 생활 하려고 노력해요. 9시면 잠들고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깨어나서 한 시간 정도는 다른 ‘짓’을 해요. 세수도하고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몸과 정신을 깨우죠. 정신이 온전히 밀쩡해지는 게 새벽 4시쯤인데 이때부터 약 2~3시간 정도 써요. 그리고 6~7시가 되면 수영을 하려 가죠.” 이렇게 꼬박 15년. 그녀는 이 시간을 채워왔다. 작가로서 오롯이 존재하기 위해서다. 작품 한 편을 집필할 때마다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

28

학창시절 첫 실습에서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텁텁하게 수술실을 ‘경험’

만큼 체력유지는 필수며, 작품을 다 쓴 후에는 건강하고 깨끗하게 모든 걸 비우는 시간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때문에 소설 <28> 이후 그녀는 히말라야를 찾았다.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저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면서 쓰는 타입이에요. 자신을 부단히 도 과롭히죠. 처음 회사를 그만두고 습작할 때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정유정, 넌 작가가 되고 싶니 글이 쓰고 싶니’ 하고. 작가가 된다는 건 직업에 대한 질문이고 글을 쓰고 싶은가는 자유의지에 대한 거예요. 당시 공모전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완전히 패배주의에 젖었거든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완전히 지배했지만 그럼에도 ‘해야지’라는 답변을 스스로에게 들려줬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삶을 통째로 던졌는데, 그렇다면 결국 다 해야죠. 아마 그래서인지, 소설 작업을 할 때도 완전히 스스로를 던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히말라야에 갔어요. 히말라야 정상에 섰을 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분이었죠. 음악이 있었다면 신나게 춤을 춰울 거예요.” 그 전까지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없던 그녀는 히말라야를 통해 세상을 크게 접하기 시작했다. 더 본질적으로는 접필로 인해 소모된 내면의 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산은 완전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두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정상으로 갈 수 없고, 호흡기로

숨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몸의 모든 동작이 멈춰버린다. 물론 여기까지는 그녀의 의지로 가능하다. 더 높이 오를수록 그녀의 몸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지경이 찾아온다. 고산병이다. 실제로 그녀는 히말라야에 오른 후 고산병으로 인해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다.

“아들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얘를 키워야 하는데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 얼굴만 머릿속에 둉둥 떠다녔어요. 그래도 노련한 가이드 덕분에 고산병을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죠. 그럼에도 아니 그래서인지 산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생애 첫 등반한 히말라야, “잊지 못할 감격”

히말라야에서 그녀는 소설로 포화된 자신을 온전히 비워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안나푸르나까지 오르고 싶었지만 고산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왔다 갔다 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남편이 ‘결사반대’라고 와쳐 안나푸르나에 대한 마음은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다른 산을 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평소 등산을 자주 해요. 험한 산도 좋고, 동네 낮은 산도 좋고. 남편이 높은 산을 좋아해요. 둘이서 험하다는 산은 찾아서 가죠. 가장 인상적인 산은, 영남에 있는 월출산이요. 남편이랑 둘이 가면서 이리쿵저리쿵 얘기도 나누고, 좋아요. 산에 올라 밑을 내려다보는 풍경도 아름답고요.”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작품을 쓰고 작품을 쓰기 위한 체력을 기르는 데 온전히 시간을 할애하는 그녀. 마흔이 넘은 나이에 늦깎이로 등단한 만큼 더 부지런히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스스로를 계속 훈련하고 단련한다.

“제가 천성적으로 남보다 저를 더 좋아해요. 심리학적으로 ‘내향적’이라는 의미는 자신에게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을 일컫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순간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래서 집중도 잘하는 편인가 봐요. 그 모습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 다 투영돼요. 저는 타인을 관찰하는 소설은 잘 쓰지 않아요. ‘이럴 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를 쓰는 편이죠. 그래서인지 캐릭터 안에, 저라는 사람이 투영되곤 하죠.” <종의 기원>이 출간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독자와 즐겁게 만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곧 다른 작품을 위해 다시 ‘숨는’ 시간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종의 기원> 후에는 독자와 만나는 시간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매우 즐겁고 감사한 경험이었죠. 이젠 다음 작품을 쓰러 다시 들어가야 해요. 제가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숨지 않으면 작품을 쓸 수 없거든요. 스스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다음 작품을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 마흔이 넘은 나이에 늦깎이로 등단한 정유정 작가. 그런 만큼 그녀는 스스로를 계속 훈련하고 단련한다.

- 정유정 작가는 사람의 마음, 특히 ‘악’에 대해 집요하게 다룬다.

“운명을
제가 할 일을 찾는 법이 없다
혹 것은 결국 죽고,
나를 어진 일을 끝내 벌어진다”



2.

29

산속의 신령스러운 버섯

영지버섯

영지버섯은 대표적인 건강식품 중 하나다.

효능도 다양해 약초계의 '멀티 플레이어(Multi Player)'라고 부를 정도.

하지만 영지버섯이 당장 내 손 안에 있다면?

'어떻게' 먹어야하는지 '어디에' 좋은지 먼저 알고나 먹자.

효능과 효과는 바로 늘어날 것이다.

감수. 전권석 박사(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영지버섯 차 만들기

How to eat

어떻게 먹을까



1. 영지버섯 성분이 잘 우러나도록
잘게 자른다.

2. 영지버섯 15g에 물 1L를 넣고 센불로
끓인다.

3. 끓여 낮춰 물이 반까
지 줄때까지 달여준다.

4. 달인 물을 식힌 후 냉장보관 한다.

사랑 덕분에 먹을 수 있게 된 영지

신령스러운 버섯이라는 의미로 '영지(靈芝)라' 부른다. 선계에서 불사(不死)약을 뜻하는 불로초가 영지의 본명. 십장생(十長生)에도 영지가 등장한다. 그만큼 좋은 약초인 셈이다.

선계에 신선만 먹는 영지를 관리하는 영지 선녀가 살았다. 영지 선녀는 최고의 여신 서왕모의 미움을 사 선계에서 쫓겨난다. 인간 세계로 온 영지 선녀는 착한 나무꾼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영지 선녀는 나무꾼에 청혼을 했지만, 나무꾼은 영지 선녀를 고생만 시킬 것 같아 청혼을 받지 않는다. 영지 선녀 역시 마음을 고쳐먹는다. 나무꾼과 결혼하게 되면, 서왕모의 질투가 더욱 커질 것 같았기 때문. 그래서 나무꾼과 오빠 동생으로 지내기로 한다. 영지 선녀는 집안일을 도우며, 나무꾼을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기운이 점점 쇠약해졌다. 며칠 후, 기침을 하며 아예 몸져눕게 되었다. 숨소리가 고르지 못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선녀는 하는 수 없이 몰래 간직해 온 영지를 나무꾼에게 먹였다. 나무꾼은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고,

선녀와의 정은 더욱 깊어만 갔다. 서왕모는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영지 선녀를 잡아오게 했다. 이를 눈치챈 영지 선녀는 영지의 균종(菌種)을 나무꾼에게 줘, 재배법을 가르쳐 준다. 선녀는 선계로 잡혀가 형벌을 받았으나, 이때부터 인간은 영지버섯을 약재로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몸에 좋은 영지버섯

영지버섯은 항암 효과는 물론 각종 성인병 예방·혈압 조절·항염·항균 등 각종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지녔다. 대표적으로 영지버섯은 성인병 예방에 좋다. 영지버섯에는 칼륨, 칼슘, 인 등이 풍부하다.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좋다. 항산화물질이 많아 항암 효과에도 뛰어나다. 비만 치료와 변비 해소에도 아주 좋다. 영지버섯을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기초대사량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지방이 몸에 쌓이지 않는 체질로 변한다. 대장운동도 활발하게 도와줘, 변비 치료와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허나, 탁월한 효능만큼 독성도 강하니 내게 맞는 음식인지 따져본 후 섭취한다. 과량 섭취 시 탈모, 어지럼증, 가려움,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우선 복용을 중지하고 섭취량을 줄여나간다. 체질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적당하게 영지버섯을 복용했음에도 위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다. 적은 양을 자주 달여먹는 게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영지버섯은 달여먹는 게 가장 보편적인 섭취법이다. 약용으로 달인다면 전기밥솥, 약탕기를 이용해 오랜 시간 달이는 게 좋다. 차로 마시고 싶다면 간편하게 주전자를 이용한다. 특히 '감초와 함께 끓이면 맛은 물론 영양까지 얻을 수 있다.' ●

아가야

숲으로 가자

대전 유림공원

전업주부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시간은 얼마나 될까. '찰나' 정도 아닐까.

그 짧은 틈을 활용해 전업주부는 재충전에 들어간다.

자신만의 시간을 오롯이 향유하고,

또다시 일상과의 사투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다.

그런 전업주부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아름답다.

우정보다 깊은

기을 하늘은 어떤 계절의 하늘보다 맑고 푸르며 높다. 이런 날씨에 집에서만 둉굴뒹굴한다면, 이처럼 아까운 사치는 없을 터. 또 기을은 스쳐 지나가듯 너무 짧지 않던가. 이토록 짧은 찰나를 마주하기 위해서라도, 어디로든 떠나야 한다. 그곳이 멀든 가깝든 간에.

모처럼 아이와 함께 조남현 씨, 윤지영 씨가 자연으로 산책 나왔다. 남자들에게 '의리'가 있다면, 여자들에게는 '자매애'라는 게 있다. 자매처럼 늘 함께하고 마주하며, 자매처럼 늘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사이라는 것. 그렇다면 둘을 자매애로 똘똘 뭉치게 한 사연은 무엇일까.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한동네에 살던 '아웃사촌'이었던다. 모퉁이 하나만 지나면 서로의 집이 있을 정도로 가깝게 살았다. 그야말로 자매애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 그래서일까.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많은 것을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 취미, 꿈, 기쁨과 슬픔, 그리고 소소한 일상까지. 그 자매애를 하늘도 기특하게 여긴 것일까. 어쩌다 보니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아웃사촌이 되었다. 덕분에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들보다, 서로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고.

그 둘을 맞이하는 기을 하늘은 어느 때보다 청명했고 화창했으며 푸르렀다. 두 사람의 마음에도 모처럼 여유로움이 풍요롭게 넘쳐흘렀다. 덕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유림공원을 유유자적 걸었다.





1. 2.

유림공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3-1
문의 : 042-611-2727

도심 속 푸른 숲

유림공원은 대전에 위치한 도시숲이다. 2007년, (주)계룡건설 이인구 회장이 사재 100억 원을 들여 조성했다. 갑천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조성했으며, 면적만 해도 57,592m²에 달한다. 2007년 조성을 시작한 유림공원은 2009년 6월,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다. 이후 계룡건설은 유림공원을 대전시에 기부했다. 이에 대전시는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이인구 회장의 아호 '유림(裕林)'을 따 공원 이름을 지었다. '넉넉한 숲'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유림공원의 가장 큰 특색은 한국의 사계절이 담겼다는 데 있다. 한국의 사계절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공원 곳곳에는 계절을 빛내는 나무가 심겨 있다. 은행나무 · 벚나무 · 백송 · 안면송 등 교목류 70종 2,000여 주, 영산홍 · 철쭉 · 황매화 · 회양목 등 관목류 26종 7만 5,000여 주, 초화류 백일홍 · 툴립 · 양귀비꽃 · 패랭이꽃 등 108종 25만 5,000여 본이 식재됐다. 덕분에 사계절 내내, 식물의 아름다움을 이곳 유림공원에서 마주할 수 있다.

도심에 자리한 숲이지만, 테마와 볼거리가 꽤나 다양하다. 한반도 모양의 인공호수 '반도지', 은행나무가 쭉 늘어선 '은행나무 길', 담양에서나 볼 법한 '메타세쿼이아 길', 위용 넘치는 소나무가 있는 '속리산 소나무 숲', '안면도 소나무 숲' 등 다양한 테마가 있어, 도시민을 이곳으로 삼삼오오 이르게 한다. 그런 유림공원에 없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길목을 가로막는 '벽'이다. 정문 · 후문이라는 개념도 없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출입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잠깐, 운동을 하며 지나가다가도 잠깐 들릴 수 있도록 유림공원은 어느 방향에서나 활짝 열려있다. 접근성도 좋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과도 무척 가깝다. 조남현 씨와 윤지영 씨는 모처럼 동네에서 벗어나 느긋한 자유 시간을 만끽했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아이와 함께.

"작은 공원인 줄로만 알았는데, 꽤 크네요. 나무도 정말 많아요."



1.
유림공원은 대전에 자리한 도시숲이다. 다양한 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운동기구도 갖추고 있다.

2.
짓궂은 표정을 한 나무가 유림공원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걷는 재미를 더한다.

3.
모처럼 자연 속을 걸은 두 사람. 두 사람은 먼 훗날 아이에게 들려줄 추억 하나가 생겼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똑같은 말을 꺼낸다. 꽤나 넓고 볼거리도 풍성하단다. 유림공원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두 사람의 발길이 제일 먼저 멈춘 곳은 '메타세쿼이아 길'. 커다란 메타세쿼이아가 양쪽으로 나란히 심겨 있다. 청명한 가늘 하늘도 가릴 만큼 키도 크고 둑지도 크다. 둘은 메타세쿼이아 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 모든 풍경을 눈과 마음에 아로새겼다. 폭신폭신한 흙길은 편안한 기분을 선사하고, 숲길로 불어오는 바람은 상쾌함을 선사한다. 도심 속에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힌다.

이 계절도 두 사람을 반기는 걸까. 유림공원 곳곳에는 코스모스가 한창이었다. 보랏빛 꽃들이 공원을 활짝 밝혀준다. 어느새 두 사람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번진다.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하루가 두 사람에게 추억으로 살포시 내려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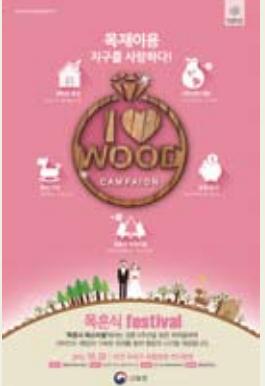
아이와 함께 여서 행복한 하루

유림공원의 중심에는 '화훼원'이 자리한다. 다년생, 일년생 화초류를 심어두어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관찰할 수 있다. 지금은 형형색색의 임파첸스가 만발이다. 누구보다 강한 엄마이지만, 이처럼 예쁜 것들 앞에서는 사르르 녹아내리는 마음 약한 여자이기도 한 두 사람. 이내 핸드폰을 들고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기에 여념이 없다. 꽃만큼이나 아름다운 미소가 두 사람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언젠가 아이들이 들추어볼 앨범에 사진 한 장을 더 채웠다.

"유림공원을 걸으면서 어릴 적 뛰어놀던 동네가 생각났어요. 높은 빌딩, 차로 빼빼한 도시가 숲에 가려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둘이 함께 걸으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기도 했고요. 우리 둘에게도 소중한 기억이 될 테지만, 래인이와 하진이에게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것 같아 무척 행복해요. 대전에 살지만 이처럼 좋은 숲이 도심 가까이에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자주 산책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유림공원을 걸으며 모처럼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떠올렸다. 여유와 휴식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

* 유림공원 행사



■ 제5회 목혼식 페스티벌

'목혼식 페스티벌'은 결혼 5년차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목재를 통해 부부의 소중함과 가족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행사 이죠. 미리 사연을 접수한 50부부가 참여한 리마인드 웨딩, 목공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시 : 10월 22일(토), 9시~17시
장소 : 042-611-2727

■ 국화전시회

일시 : 10월 8일 ~ 30일
장소 : 유림공원, 유성천 일대,
한밭대로 일번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어떤 날 숲'과 함께 숲으로 떠날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숲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독자 분은
독자 엽서. 이메일을 통해 참여 부탁
드립니다.

나를 뚱요롭게 만들어주는

달콤한 안식

잣 · 대추

때로는 달콤한 초콜릿 한 입이 때로는 바삭한 비스킷 한 조각이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때가 있다.
맛있는 디저트 한 입이 달콤한 안식으로 나를 부른다.

잣과 대추로 만드는 디저트 향연

요리 & 스타일링 김보선

Tip.

타르트 틀에 파이 반죽을 붙인 뒤, 바닥을 포크로
찍어줘야 구우면서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파이 속 재료 중 꿀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해도 좋다.



잣 타르트

재료 (16cm 타르트 틀 2개 분량)
파이 반죽 : 버터 50g, 밀가루 135g, 설탕 5g,
찬물 38g, 분량 외 덧밀가루 적당량
파이 속 : 잣 150g, 계피가루 $\frac{1}{2}$ 작은술 흑설탕
90g, 꿀 45g, 물 2g, 달걀물 70g 소금 약간

만들기

- 파이반죽을 만든다. 버터는 사방 1cm 크기로 썬다. 반죽을 밀가루, 설탕과 함께 푸드 프로세서(또는 믹서기)로 고루 섞는다. 찬물을 붓고 다시 한번 섞어, 한 덩어리의 반죽을 만든다.
- 1을 비닐에 넣고 1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둔다.
- 2를 꺼내어 덧밀가루를 뿌려가며 3m 두께로 만다. 그 후 타르트 틀에 얹고, 모양을 잡는다. 포크로 바닥에 구멍을 뚫는다.
- 파이 속을 준비한다. 잣을 3속에 $\frac{2}{3}$ 정도 채운다.
- 냄비에 계피가루, 흑설탕, 꿀, 물, 소금을 넣고 주걱으로 저어가며 흑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데운다. 이후 불을 끄고 식힌다. 여기에 달걀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섞는다.
- 5를 4의 잣이 살짝 잡힐 정도로만 부은 뒤, 170℃로 예열한 오븐에서 40여 분간 구워 완성한다.

대추 스콘

재료 (6~8개 분량)
대추 10개, 밀가루 270g, 베이킹 파우더 10g,
버터 80g, 설탕 30g, 우유 90g, 달걀물 50g,
소금 약간, 분량 외 우유, 덧밀가루 적당량씩

만들기

- 대추는 돌려깎기한 후 채 썬다.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는 같이 체에 내린다.
- 버터는 차가운 상태에서 사방 1cm 크기로 각두 썬다.
- 푸드 프로세서(또는 믹서기)에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버터, 설탕, 우유, 달걀물, 소금을 넣고 돌려 한 덩어리의 반죽을 만든다.
- 3에 대추를 넣고 고루 섞은 다음, 밀대를 이용해 3cm 두께로 밀어 냉장고에서 30분 이상 둔다.
- 4를 모양틀로 찍거나 원하는 크기로 썬 다음, 윗면에 우유를 가볍게 발라 180℃로 예열된 오븐에 20~25분간 굽는다.



Tip.

반죽에 우유를 바르면 윤기가 나면서 노릇한 스콘을 구울 수 있다. 달걀 노른자를 우유에 섞어 바르면 더욱 맛을 치스러워 보인다.

1.
왕산약초마을은 산양삼을 주축으로 하여
하수오, 독활, 삼주 등을 재배한다.

2.
왕산약초마을의 최무열 대표, 산약초
를 재배할 뿐만 아니라, 직접 승해설
도 진행한다.

숲에서 자라는 가치

하늘과 땅의 건강한 기운 담아낸

자연의 산물 찾아서

강릉 왕산약초마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해발 900m의 백두대간 능선에는 산의 정기를 받고 자라난 산약초가 가득하다.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라는 약초는, 가파른 산비탈에 납작 엎드려

땅 기운을 빨아들이고 산의 정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산의 맑은 공기와 영롱한 아침이슬은 산약초에 자양분이 되어, 초록빛을 더욱 빛나게 한다.

그렇게 자라난 산약초는 어떤 귀한 약보다 좋은, 천연 보약이 된다.

강릉 왕산약초마을에 다녀왔다.

그곳에는 자신의 힘으로만 자라난 산약초가 뛰어난 효험을 자랑하며, 땅 위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자연의 기운으로 가득한 심산유곡(深山幽谷)

왕산약초마을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강릉 시내부터 시작해, 고개를 넘고 넘고 넘었다. 넘어도 넘어도 고개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사방팔방에는 오로지 나무와 풀로 무성한 숲이 자리할 뿐이었다.

그렇게 40여 분을 달렸을까. 한적한 시골 마을 뒤편에 나지막이 자리한 숲이, 왕산약초마을에 도착했음을 알린다. 하지만 이도 끝이 아니었다. 왕산약초마을 표지판이 자리한 곳부터, 약 30여 분간 산비탈을 걸어 올라야 했다. 굽이굽이 이어진 길은 약초꾼의 손길로 가꿔졌는지, 정갈하면서도 정감 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올라, 산 중턱에 자리한 자그마한 '산장'에 도착했다. 이곳을 꾸려나가는 이는, 왕산약초마을의 최무열 대표다.

원래는 건설업에 종사했던 최 대표는 하던 일을 접고 2007년에 왕산약초마을을 개장했다. 마을의 목적은 지친 도시민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나름 산약초에도 일가견이 있던 터라, 기왕에 산약초까지 재배하기 시작했다. 왜 하필 산약초였을까. 그 기반에는 최 대표의 부모님이 계셨다.

‘부모님께서 약초를 재배하셨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 어깨너머로 산약초 재배하는 방법을 배웠죠. 부모님이 해오던 일이니, 웬지 누군가는 이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명감이랄까요. 넓은 오지랖이 작용한 거죠.’

뜻하지 않게 생겨난 사명감으로, 그는 산약초 재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주 품목인 산양삼부터 삼주, 시호, 하수오, 독활 등 여러 산약초를 재배했다. 하지만 산약초를 재배하는 일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정례화된 산약초 재배법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재배법을 찾아야만 했다. 양지 식물과 음지 식물을 구분하는 일부터, 산약초가 잘 자랄 수 있는 해발고도를 맞추는 일까지. 최 대표는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터득해 나갔다. 깨달아 갔다. 다만 재배하는

산약초가 어떤 효능을 지녔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 교육 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독학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아나갔어요. ‘실험적’으로 여러 산약초를 재배해 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산에서 잘 자라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떤 삼이든 들여다만 보아도 이게 몇 년짜리인지, 좋은 삼인지 아닌지, 어디서 자랐는지도 알 수 있게 되더군요.”

정례화한 재배법은 없으나 최 대표가 지향하는 바는 있다. ‘태평농법’이다. 산약초가 자연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농법이다. 달리 표현하면 ‘방치’다. 따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며, 약도 치지 않는다. 왕산약초마을의 규모가 축구장 25개를 합친 정도이니, 관리는 턱도 없는 일이다. 때문에 산약초가 그저 산의 정기와 땅의 기운을 받아, 무력무력 자라나길 바랄 뿐이다.

산약초를 채취하는 때도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 다만 필요에 따라 채취할 뿐이다. 이곳에서 나는 산약초는 대부분 십전대보탕과 같은 한약재로 쓰이거나, 체험 프로그램인 ‘약초 캐기’에 활용된다. 혹은 개인에게 판매한다.

지극하게 노력한 덕분일까. 그는 몇 해 전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유림을 임대받았다. 덕분에 더욱 넓은 부지에서 산약초를 재배할 수 있게 됐다.

3.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자. 산중턱에
'산장' 하나가 나왔다.



4.
왕산약초마을의 인기 체험 프로그램,
모노레일. 모노레일을 타고 산을 한
바퀴 돌며 최무열 대표가 직접 설명
하는 숲해설을 들을 수 있다.

5.
왕산약초마을에는 개미취 등의 다양
한 산약초가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산약초의 향긋함에 빠지다

최무열 대표는 왕산약초마을에서 산약초를 재배하고 숲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인기가 가장 좋은 체험 프로그램은 ‘모노레일’을 타고 진행하는 숲해설이다. 최 대표가 모노레일도 직접 운행하고, 숲해설도 직접 도맡아 한다. 프로그램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원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해 설치한 거예요. 그러나 체험객도 타볼 수 있도록 했죠. 방문객들은 모노레일을 타고 숲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어요. 숲 중간 중간마다 쉼터가 있어, 그곳에 잠시 모노레일을 세워 놓고 숲해설을 진행하죠. 숲의 가치와 나무의 유용성에 대해 강의해요. 때로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함께 산약초에 대해 공부하기도 해요.”

몸과 마음을 숲에서 힐링한 후에는, 산약초를 직접 캐 보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짧은 연령층을 위한 ‘나무 되어 보기’ 프로그램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을 이해하고, 또 자연을 통해 치유 받는다. 이곳, 왕산약초마을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이다.



4.



5.



보람과 긍지로 6차 산업 이끌기

사실 최 대표의 목표는 ‘경제적’ 이득에 있지 않다. 만약 그가 경제적 이윤만 쫓았다면, 왕산약초마을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는 말한다. 무엇보다 6차 산업을 이끄는 가장 큰 핵심은 ‘장인정신’이라고. 장인정신, 어렵고도 무거운 단어다.

“모든 산업이 ‘이윤’이라는 경제적 가치만 쫓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산업이든 경제적 가치에만 목적을 두면,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은 ‘돈’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장인정신을 가지고 일하면 좋겠어요. 또, 사람에게든 자연에게든 필요한 일을 하면 좋겠어요. 바로 거기에 성공의 기준을 삼으세요. 저 역시 돈을 벌고자 했다면, 애초에 이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6차 산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최 대표는 긍지와 보람을 원동력 삼아, 왕산약초마을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산약초 재배부터, 숲체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숙소 · 교육장 · 트레킹 코스 그리고 산약초를 재배하는 장소까지. 모든 것들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왕산약초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아마 몇 년 내에는 제가 꿈꾸는 일들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접근성도 더 좋아져, 더욱 많은 사람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최무열 대표. 우직하게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앞세워 달려가는 최 대표가, 더욱 살뜰하게 운영해나갈 왕산약초마을을 기대해 본다. ☺

강릉 왕산약초마을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 50번지
문의 : 033-645-8113

우리 가족의

캠핑 스타일 찾기

첫 번째. 캠핑 컨설팅

청량한 가을 바람이 분다. 가을은 캠핑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계절이다. ‘캠핑, 한번 해 볼까?’ 도전의식이

샘솟는 동시에 막막하다. ‘어떤 텐트를 살까? 또 뭘 준비해야 하나?’ 열에 아홉은 ‘장비’부터 생각한다.

하지만 장비는 캠핑의 하드웨어이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캠핑 스타일’이 먼저이다.

내 캠핑목적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에게 맞는 캠핑 스타일을 설정해 보길.

그 밑그림이 그려지면 장비, 장소는 저절로 결정된다.

글. 안윤정(캠핑작가)



어떤 캠핑을 할 것인가?

가족과 즐기는 가장 일반적인 캠핑 형태는 ‘오토캠핑’이다. 자동차를 이용해 짐을 옮기고, 차 바로 옆에 텐트를 치고 생활한다. 대부분 전기사용이 가능하고 편의시설이 좋은 오토캠핑장을 찾게 된다. 처음 캠핑을 하거나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적합한 형태이다.

오토캠핑과 달리 자동차 접근이 어려운 곳은 장비를 간소화해야 한다. 일명 ‘미니멀 캠핑’이나 ‘백패킹’ 형태. 자연 속으로 더욱 가까이 들어가고 싶은 경우이다. 더불어 불편함은 좀 감수해야 한다. 보통 휴양림 앙장이나 산속, 섬 등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적당하다. 마지막으로 장비 설치가 번거롭고 편한 캠핑을 원한다면 글램핑이나 카라반, 캠핑카 캠핑을 추천한다. 근래에는 업체가 많아져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도 낮아졌다.



Check List

어느 계절에 캠핑 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이 장비 선택의 필수 조건이다. 캠핑은 계절이나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 활동이다. 여름에만 하고 싶다면 난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장비 면에서 수월하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캠핑을 즐기고 싶다면 난방 용품이며 텐트 선택에서도 좀 복잡한 고민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얀 설원 위의 텐트를 동경하며 겨울 캠핑을 꿈꾼다면 준비할 것이 더욱 많아진다. 일단 여름 캠핑을 맛 보고, 재미를 붙인다면 가을까지 이어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씩 장만해 보길. 그리고 겨울 캠핑은 무조건 도전은 금물! 주변의 조언을 얻어 난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천천히 시도하기 권한다.

캠핑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캠핑은 '사서 고생하는 활동'이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캠핑하는 이유는 뭘까? 그 답이 바로 캠핑의 목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자 한다. 또 어떤 이는 아이들의 에너지 발산을 위해 캠핑을 시작했다고 한다. 여행, 트레킹, 등산, 낚시, 자전거 등을 즐기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고기도 구워 먹고 가족, 친구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이때 캠핑은 좋은 수단이자 주말을 보내는 가족의 공동 취미활동이 된다.

내 캠핑 스타일을 쉽게 찾기 어렵다면?

우리 가족에게 맞는 스타일을 단번에 결정하긴 어렵다. 끌리는 스타일은 있어도 사실 실제 캠핑을 해 보기 전까지는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캠핑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지인의 캠프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자. '캠핑 맛보기'를 하면서 느낌도 알 수 있고, 조언도 얻을 수 있다. 방문 캠핑이 어렵다면 글램핑을 해보길. 피크닉 캠핑도 괜찮다. 일단 익숙하지 않은 '야외 생활'에 한 단계씩 들어가면서 스타일을 찾아보자.

1.
캠핑은 '사서 고생하는 활동'이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캠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이 바로 캠핑의 목적이다.

2.
겨울 캠핑을 위해서는 '투자'가 좀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사각형 침낭을 사용하지만, 머미형 침낭은 열손실이 적어 동계 캠핑에 적당하다.

3.
의자와 테이블도 캠핑 스타일에 따라 결정된다. 미니멀 캠핑을 원한다면 '좌식 모드'가 좋다.

1.



2.

3.

캠핑 스타일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준비에 들어가도 좋다. 텐트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이다. 크게 돔형 텐트(일체형 텐트)와 거실형 텐트(투룸 텐트)가 있다. 주로 여름에 캠핑을 한다면 돔형 텐트가 적당하다. 하지만 가을, 겨울에도 캠핑할 생각이라면 아늑한 거실형 텐트가 필요하다. 주로 오토캠핑장을 이용한다면 커다란 거실형 텐트가 좋다. 하지만 휴양림 야영장을 찾는다면 부피가 큰 거실형 텐트는 부적합하다. 데크가 작아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등산이나 백패킹을 주로 한다면 가벼운 알파인 텐트를 권한다. 매트와 침낭은 침대와 이불이다. 오토캠핑에서는 밸포매트면 충분하다. 저렴하고 사용도 편리하다. 만약 미니멀 캠핑이나 백패킹으로 부피를 줄여야 한다면 공기를 주입하는 에어매트가 필요하다. 여름에만 캠핑한다면 굳이 침낭이 필요없다. 이불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다른 계절에도 캠핑을 즐기고 싶다면, 특히 겨울에 캠핑을 하고 싶다면 침낭에 '투자'를 좀 해야 한다. 사각형 침낭이 보편적이고, 다리로 갈수록 좁아지는 머미형 침낭은 열손실이 적어 백패킹이나 동계 캠핑에 적당하다.

의자와 테이블도 모두 캠핑 스타일에 따라 결정된다. 오토캠핑을 한다면 다리가 높은 테이블과 의자를 쓴다. 휴양림 데크 등에서 미니멀 캠핑을 즐긴다면 일명 '좌식 모드'가 편하다. 소풍 나온 듯 둑자리를 깔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낮은 테이블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는 낮은 의자나 등받이만 있는 의자도 있다.

랜턴은 캠핑장의 조명이다. 연료에 따라 가스 랜턴, 석유 랜턴, 전기 랜턴이 있다. 석유 랜턴은 광량이 풍부하나 펌핑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사용이 쉽지 않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전기 랜턴이나 건전지 랜턴을 권한다. 가스 랜턴도 많이 사용하나 겨울철에는 사용이 힘든 경우가 있다. 버너는 랜턴과 연료를 맞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가스 랜턴을 쓴다면 가스 버너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보통은 식당이나 가정에서 쓰는 부탄가스 버너면 충분하다. 하지만 겨울 캠핑을 고려한다면 이소부탄가스나 LPG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화이트 가솔린이나 등유 등 기름을 쓰는 버너는 기온에 관계없이 화력이 일정한 장점이 있지만, 사용이 좀 번거롭다. 보통 코펠이나 식기는 가족 위주의 오토캠핑이라면 스테인리스 제품 정도가 적당하다. 하지만 백패킹까지 염두해 둔다면 강도가 높고 가벼운 티타늄 식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족의 캠핑 스타일로 통일성 있는 사이트 구성하기!

캠핑 초보자가 가장 경계할 것은 바로 '장비의 높'에 빠지는 것이다. 스타일을 세우지 않고 남들을 따라 하다 보면 장비를 계속 사들이고, 바꾸게 된다. 어느새 여러 가지 장비가 혼재하는 통일성 없는 캠핑 사이트만 남는다. 사실 '캠핑'에는 정답이 없다. 캠핑을 다니다 보면 자신만의 모드가 생기고 요령이 생긴다. 항상 자신의 주관을 잊지 말길.

혼자 캠핑을 한다면 몰라도 가족 캠핑은 구성원의 의견이 중요하다. 캠핑을 리드하는 사람, 주로 남편이자 아빠일 가능성이 높다. 혼자 결정하지 말자. 무턱대고 끌고 나가는 캠핑은 오래 가지 못 한다. 꼭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의 캠핑 스타일'을 고민해 보자. ☺



산촌일기

풍요가 넘나드는

계절

<5화> 산촌에서 농사 짓기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연신 찾았고, 가을이 오기만을 목 빠져라 기다렸지요. 그러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네요. 목인동의 산과 들에도 가을 향기가 만연합니다.

선선한 바람과 풍성한 그늘이 기다리는 이 가을, 목인동을 함께 걸어보실래요?

글. 이용길



산촌일기

풍요로운 가을. 산촌에서는 어떤 결실이 맺어졌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산촌에서 구절초를 재배하고, 재배한 구절초로 꽃차를 만드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

지독한 폭염과 가뭄으로 올 여름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풀들은 그런 와중에도 무성하게 자라나더군요. 아침, 저녁으로 풀을 뽑으면서 지난한 여름을 보냈어요. 그래도 목인동은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한여름 불청객인 열대야가 없어 그럭저럭 잘 지냈답니다.

숲은 그래서 여러 모로 고마운 존재예요. 싱그러운 신록은 사진으로도 담아낼 수 없고, 도화지에도 담아낼 수 없는 특별함이죠. 이뿐인가요. 식물들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선한 공기 덕분에, 주변이 무척이나 쾌적하답니다. 덕분에 주변 온도가 도심지보다 3°C가량 낮아 더위도 피해간답니다. 모두들 무더웠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숲이 주는 혜택 덕분에 무더위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소리 소문 없이 목인동에 찾아왔습니다. 가을밤은 더욱 깊어만 가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더욱 우렁차지네요. 가을은 구절초의 계절입니다. 폭염과 가뭄 중에 심은 구절초가 목인동 앞뜰에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어요. 더불어 심은 맨드라미, 페퍼민트도 그런대로 잘 자라주었네요.

가을은 구절초의 계절이라 할 만큼, 구절초가 돋보이는 계절입니다. 산에 들에 구절초 향으로 가득하네요. 구절초 향만으로도 저는 구절초에 흡뻑 취했답니다.

덕분에 바쁜 가을을 보내야할 것 같아요. 잘 자라준 구절초를 따서, 구절초 꽃차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세웠습니다. 구절초뿐만 아니라, 페퍼민트, 뽕나무, 맨드라미 꽃차도 만들어 보려고요. 생각해보니, 오가피 열매도 따야하는군요. 무척 바쁜, 결실의

계절이 목인동에 찾아왔네요. 힘들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세상에 뿐진 자연에 감사하고, 잘 자라준 생명들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잘 수확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조금은 몸이 피곤해도, 조금은 바쁜 하루가 될지언정 사람들의 미소를 보면 금세 행복해지거든요.

구절초가 주는 행복

구절초는 7월에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구절초가 다복하게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죠. 꽃이 피어나는 시기, 아주 이른 아침부터 저는 바빠지기 시작해요. 벌레들이 활동하기 전, 갓 피어난 꽃잎을 따야 하거든요. 어린잎으로 꽃차를 만들면 구절초의 예쁜 색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입은 물론 눈까지 호사를 누릴 수 있죠.

농사일이 대개 그렇듯 구절초를 채취하는 일도 이른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갓 피어난 구절초 꽃을 땅니다. 바구니를 가득 채운 꽃을 세척해 준 후 물기를 뺀 다음, 건조 작업을 시작합니다. 건조 작업은 손이 제일 많이 가요. 그렇게 건조한 구절초를 따뜻한 방에서 약 3일 정도 말립니다. 잘 말린 구절초를 예쁜 병에 담아주면, 목인동 표 구절초 꽃차가 탄생하죠!

먹기 간편하게 티백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은 목인동에서 직접 하지 않아요. 목인동은 외주업체에 맡기는 편입니다. 잘 말린 구절초를 외주 업체에 보내면, 구절초를 잘게 분쇄한 후 티백 타입으로 가공해준답니다. 저희 목인동은 OEM 업무 협약을 맺은 티백전문제조업체에서 티백을 제조하고 있어요. 구절초도 목인동에서 직접 재배하고, 티백도 목인동이 믿고 맡긴 곳에서 제조하니 목인동 제품만큼 신뢰가 가는 제품이 없을 겁니다.

올해에는 구절초, 페퍼민트, 어린 뽕잎을 말려 '3종 티백차'를 만들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2016년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세종시 마을 기업의 일환으로, 목인동에서 생산한 티백차 세트를 판매했죠.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이 목인동의 꽃차를 맛 보고 놀라워했어요. 향도 향이지만, 맛도 일품이라는 평이었습니다. 이건 다 목인동이 있는 세종시의 날씨 덕분입니다. 세종시 전의 면은 일교차가 커서 꽃들의 색상이 좋고 향기가 무척 좋거든요. 저 역시 사람들이 만족하는 모습에 기뻤습니다. 더욱 신뢰 가는 꽃차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
3.

[이용길]

20여 년의 도시 생활을 접고 2004년부터 산촌 생활을 시작했다. '땅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를 모토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1. 목인동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면 목인동은 더욱 고즈넉해지죠.

2. 목인동으로 들어오는 길목도 황금색으로 물들었네요.

3. 아내와 함께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은 무척 행복한 일입니다.

4. 목인동은 구절초를 재배하기 좋은 환경이랍니다. 덕분에 생김새도 예쁘고 향도 무척이나 좋은 구절초가 아주 많아요.

5. 직접 재배한 구절초로 만든 구절초 꽃차입니다. 주로 지인들에게만 판매해 있는데, 올해부터는 판매처를 늘리볼 계획이에요.

사실 구절초는 아는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해왔습니다. 유통 경로가 별로 없었죠. 이번 마을기업박람회를 계기로, 일반 대중에게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 기쁘네요. 이후에는 세종시 로컬푸드매장에도 꽃차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좀 더 좋은 꽃차를 제공하기 위해, 목인동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꽃차 한 번 마시고 싶지 않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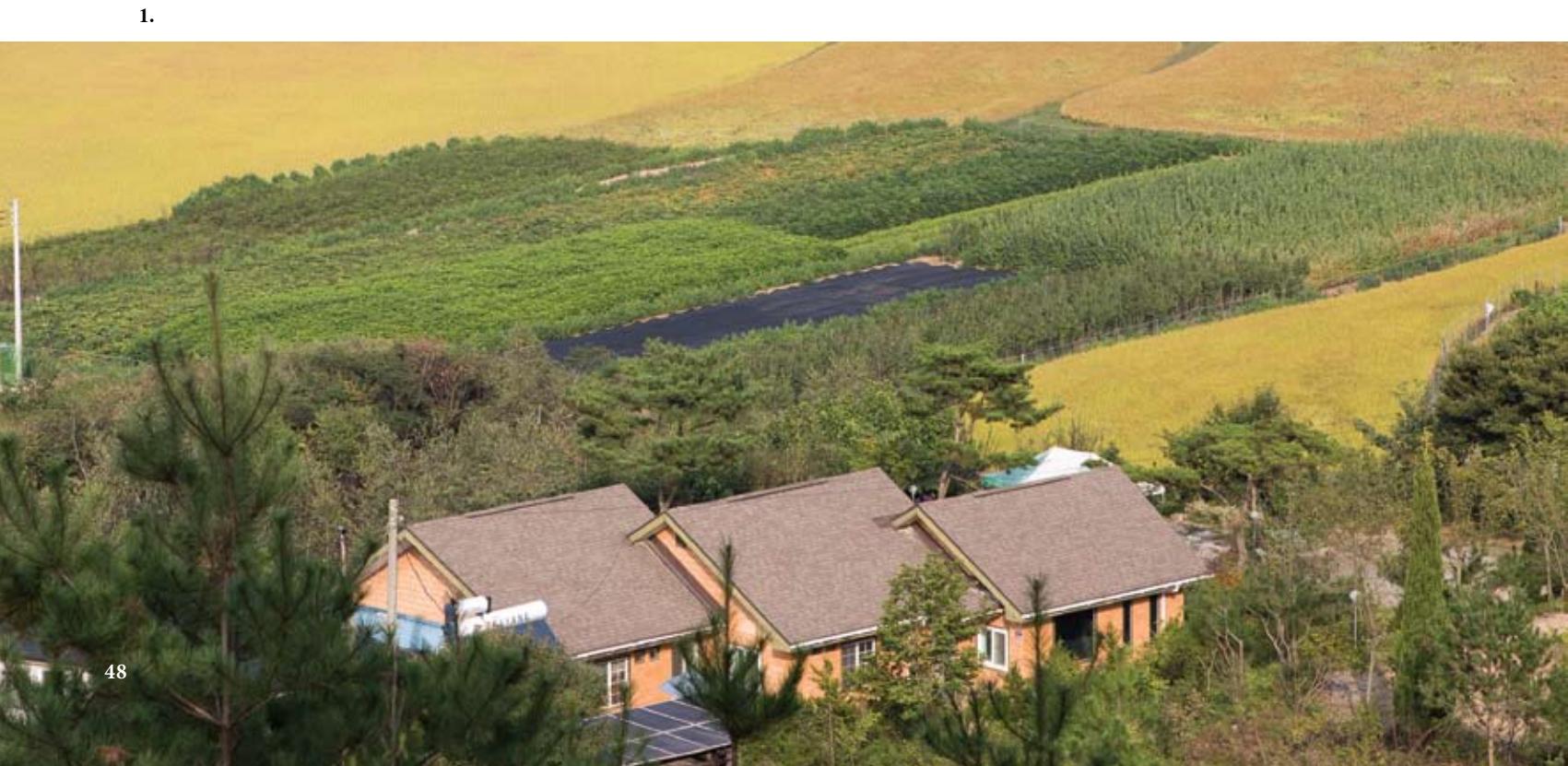
목인동으로의 초대

목인동의 구절초가 유명하다 보니, 목인동에서는 구절초를 활용해 '구절초 꽃차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든 와서 방문한다면, 구절초의 모든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답니다.

목인동의 구절초 들판을 둘러볼 수 있고, 저에게 직접 구절초의 효능을 배울 수 있으며, 구절초 꽃차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답니다. 물론 구절초 꽃차도 마실 수 있고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민족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가을 밖에는 진행하지 않으니, 구절초의 향연을 느끼고 싶다면! 어서 목인동으로 서둘러 방문해 주세요.

올 한 해도 몇 개월이 채 남지 않았네요. 겨울이 오기 전 제가 '꼭하는 작업이 있답니다. 목인동을 아름답게 빛내는 나무에 '월동' 준비를 단단히 해 두어야 한답니다. 월동이 안 되는 아이들은 화분에 옮겨 심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해요. 다음 해를 위해 씨앗도 받아 두어야 하고, 추위에 야한 나무에는 보온재를 이용해 피복 입히기도 해야 합니다. 자식처럼 아끼는 것들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모든 나무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말들을 하지요. 어떻게, 추석에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이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은 무엇을 수확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혹시 마음의 안식이 필요하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목인동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목인동은 <매거진 숲> 독자 여러분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있답니다. ☺



그저 마음 가는대로 색칠해 보세요



●
잣
나
무

안녕하세요 잣나무에요.
가을이면 잣으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죠.
새끼손톱보다 작은 잣은,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하죠.
특히 잣은 혈색을 좋게 해주고,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기 때문에
건강한 동안 미모를 가꾸는 데 톡톡히 도움을 준답니다.
잣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는 또 어떻고요.
잣나무 숲을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평온해 진답니다.
잣나무가 피톤치드를 연신 뿜어내는 덕분에, 상쾌한 기분은 물론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지죠.
정말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몸과 마음마저 바람처럼 훌훌 가벼워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 번의 계절만이 남아있네요.
그저 아트테라피의 선을 따라 잣나무를 색칠해 보며
지나왔던 날과 다가올 날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미련이라는 감정은 훌훌 털어내고
기쁨이라는 감정만을 마음 속 깊은 곳에 품어보세요.

과명 소나무과 학명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분포지 중남부 지방의 표고가 높은 산악 지대, 북부 지방
개화기 5월 암꽃과 수꽃 결실기 이듬해 10월 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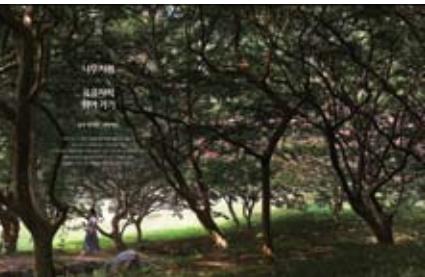
색연필, 마커, 펜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개성 있는 나만의 잣나무를 보여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6년 7+8월호 독자 의견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업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단상을 읽고 난 후, 백일 동안 꽃 피우는 배롱나무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여행은 물론 역사, 인포그래픽을 통해 배롱나무에 관해 알차게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기사를 통해 담양의 명옥현, 관방제림을 저도 한번 걷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선영_서울

담양을 생각하면 늘 대나무가 떠올랐는데, 담양에서 배롱나무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또, 관방제림이라는 멋진 곳이 있더니! 명옥현, 관방제림을 매기진 숲을 통해 멋진 화보처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몸과 마음을 힐링해주는 멋진 장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혜정_광주



매기진 숲을 통해 풍부한 상식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번 호에서는 엄마와 딸이 함께 떠난 여행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딸은 서울에 있고, 저는 대전에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거든요. 어떤 날 숲을 통해 멀리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 딸이 떠올라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도 한 번 마을숲으로 여행을 떠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왕영선_대전

문경 오미자체험촌을 매우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새콤달콤한 오미자의 활용이 무궁무진하다니, 저도 한번 문경 오미자를 사서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체험촌 전경이 아름다워서 다음 휴가 지로 문경 오미자체험촌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 대표님의 인생사도 무척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권순만_부산

산촌일기를 통해 '임업후계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네요. 세종시 1기 마을 기업인 '목인동'을 보며, 나무와 숲과 사람이 상생하는 마을을 꿈꾸기도 했답니다. 꼭 그 꿈을 이루고 싶게 만든, 기사였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관계 기관 활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미래 영농꿈나무에게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동열_경기도 안양



산이 주는 최고의 선물

청정 숲푸드 79가지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소개합니다.

숲푸드(임산물)란?

산나물, 버섯, 수액, 견과류, 과실 등
산림에서 생산 또는 채취되는
모든 임산물입니다.

임산물 소득원 지원사업은?

청정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임산물 산업 육성을 위해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거름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쌔리,
꽃송이버섯, 복령



아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안전하고 영양 많은
우리 청정 임산물 많이 드세요!



밤, 떡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수액(樹液), 나뭇잎(망개잎), 나뭇가지,
나무껍질(굴피껍데기),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